

#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1월 9일  
제1878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루카 3,21-22)



〈그리스도의 세례〉, 프란체스코 알바니

## 주님 세례 축일 (다해)

**제 1 독서** 이사 42,1-4.6-7 <또는 이사 40,1-5.9-11> |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이다.

**화답송** 시편 29(28)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제 2 독서** 사도 10,34-38 <또는 티토 2,11-14; 3,4-7> |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음** 루카 3,15-16.21-22 |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그때에 <sup>15</sup>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sup>16</sup>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sup>21</sup>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sup>22</sup>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 주님 세례 축일

### 주님의 세례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루카 3,22)

‘주님 세례 축일’은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다른 ‘주님 공현’이라 할 만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공적으로 드러나신 특별한 날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세례를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부께 대한 순종과 낮추심으로 우리 역시 주님의 세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성사를 받음으로써 모든 죄를 물로 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으며, 신앙과 희망과 사랑의 덕을 포함하는 하느님의 은총”(전례사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세례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신비와 사랑을 고백하며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 거듭 나아겠습니다.

전례력으로는 주님 세례 축일로 성탄 시기가 끝나고, 다음 날부터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 복음 묵상

교회는 오늘 주님 세례 축일을 지내며 성탄 시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축일은 세례자 요한에게 받으신 예수님의 세례(마태 3,13-17; 마르 1,9-11; 루카 3,21-22 참조)를 기념하고,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묵상하게 합니다.

세례의 표지인 ‘물’의 중요한 역할은 ‘정화’입니다. 손이 더러워지면 물로 씻듯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참하느님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곧 우리와 같아지시려는(필리 2,6-7 참조)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루카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바로 다음 장면을 전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성령의 내리심은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떠올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요한의 세례가 죄의 회개를 위한 물의 세례였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죄의 용서를 위한 성령과 불의 세례입니다. 오늘 제1독서가 전하는 하느님 말씀이 예수님의 세례에서도 울려 퍼집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보증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기도’와 ‘성령’의 힘으로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제2독서의 증언처럼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가장 큰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가 받은 세례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받은 우리를 그분께서 걸으신 복음 선포의 길로 초대합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있을 뿐입니다.

2022년 “기억의 해 - Remember”

##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 하느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하는 한 해 -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기억과 행함은 최후의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가 지닌 본연의 사명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것을 성찬을 통해 지속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찬은 교회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함으로써 교회가 일치될 이루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빵을 나누라고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라는 가르침입니다.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로 우리의 지나온 길을 기억하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김태진 베네딕토 주임신부, 2022년 사목지침 중에서〉

### ○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공식 로고 설명



지혜와 빛으로 충만한 커다랗고 위엄 있는 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하는 심오한 생명력과 희망의 표징입니다. 이 표징은 태양처럼 빛나는 성체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또한, 손이나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모습과 같이 가로로 뻗은 나뭇가지들은 성령을 암시합니다.

하느님 백성은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노드’(synod)라는 단어의 어원이 의미하는 ‘함께 걷기’를 직접 보여 줍니다. 하느님 백성은 이 생명의 나무가 그들에게 불어 넣어 준 그 동일한 힘으로 하나가 되어 그들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기 15명의 실루엣은, 여러 세대와 출신으로 삶의 다양한 상황에 있는 인류 전체를 한데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다양한 밝은 색채들로 강조되며, 이는 기쁨의 표징입니다. 같은 바탕 위에서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는, 곧 젊은이와 노인, 남자와 여자, 청소년과 어린이, 평신도와 수도자, 부모와 부부과 독신자, 건강한 이와 장애인 사이에는 어떤 위계도 없습니다. 주교와 수녀가 이들의 선두에 서지 않고, 이들

사이에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어린이들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길을 열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마태 11,25) <세계주교시노드 자료실 : <https://cbck.or.kr/Synod/2021-2023>>

**1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1월 9일(일) 오후 1시 (B-3,4)
- KF 94 마스크 착용으로 진행합니다.

**2 1월 단체장 회의, 하상회, 안나회 모임**

- 코로나 확산세로 취소되었습니다.

**3 2021년 성경학교 동계 연수회**

- 일시 : 1월 9일(일) 오후 2시 - 5시(중 모임으로 변경)
- 대상 : 1, 2학년 전원
- 강사 : 홍jem마 수녀님(바오로딸)

**4 꾸리아 모임**

- 일시 : 1월 16일(일) 오전 11:40 (하상관 #3,4)
- KF 94 마스크 착용으로 진행합니다.

**5 2022년 교무금 카드 발송**

- 2021년 교무금 세금공제 납부액 영수증과 2022년도 교무금 카드를 각 가정으로 발송했습니다.
- 액수에 문제가 있거나 받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로 오셔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6 2022년 바오로 딸 성경학교 등록(1, 2, 3학년)**

- 등록 기간 : 1월 16일(일)까지
- 등록 대상 : 1, 2, 3학년 우편통신, 이러닝 과정
- 등록 방법 : 미사 전후 친교실 · 사무실
- 문의 : 교육부 (703) 850-2968

**7 2022년 본당 달력 배부**

- 본당 달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미사 후에 받아가세요.

**8 나눔 실천 2차 헌금**

- 매월 셋째 주일은 나눔 실천을 위한 2차 헌금의 날로 정합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눔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2차 헌금은 환경이 어려운 이웃 본당에 전달됩니다.

**9 파티마 세계 사도직 첫 토요 신심**

- 2월부터 파티마 세계 사도직 첫 토요 신심미사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0시 30분에 봉헌됩니다.
- 파티마 기도 모임은 9시에 있습니다. (1월 파티마 세계 사도직 기도 모임은 쉽니다.)

**10 주일학교 개학 연기**

- 주일학교 개학이 1월 2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11 본당 사무실 월요일 휴무**

- 이번 주부터 사무실 월요일 휴무합니다. 업무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교구에 따른 지침**

1. 질병이나 악천후(홍수, 허리케인, 폭설)로 인하여 미사 참석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미사참례 의무가 면제된다. 대신 교회는 대송(공소예절, 기도, 성서 읽기, 선행)을 바칠 것을 권고한다. (교구 웹사이트 참조)
2. 우리 본당은 악천후와 관련해 Fairfax County Public School 지침을 따르며, 이에 따라 건물 사용 및 행사(활동)가 취소된다. (www.fcps.edu 참조)
3. 본당의 미사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거행되며 악천후로 인해 미사참례 의무는 없지만 부득이 미사참례를 할 경우에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4. 악천후로 인하여 바닥이 미끄러운 날은 굽이 높은 신발이나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은 절대로 신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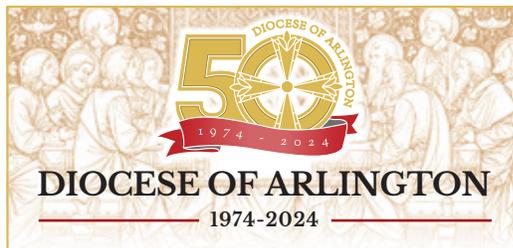
**코로나19 본당 수칙**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CDC에서는 오미크론에 천 마스크나 덴탈용 마스크는 면역력이 떨어지므로 KF 94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당 미사 참례와 모임시에 KF 94를 써주시고, 평일 미사에는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 주세요.

1. 미사 참석자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2. 성당에 들어갈 때는 꼭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3. 평일미사 때는 표시된 좌석에 앉아 주세요.
4. 회합을 할 때에 마스크를 꼭 쓰고 합니다.
5. 회합 장소는 사전에 사무실과 협의합니다.



**알링턴 교구 설정 50주년**

알링턴 교구는 2024년 교구 설정 50주년 희년을 준비하며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한 영적, 지적 쇄신을 향하여 3년 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Year One (2021.11.21 시작)

**"Remember"** :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구의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합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jubileehome/>

**새해를 맞이하며 바치는 기도**

-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새해에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맡은 책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소서.
- ◎ 아멘.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1월 2일(주님 공현 대축일)**

주일헌금.....	\$ 5,624.00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헌금.....	\$ 4,043.00
교무금.....	\$ 15,470.00
교무금(신용카드).....	\$ 1,730.00
감사헌금 & 성소후원회.....	\$ 3,103.00
온라인 봉헌.....	\$ 8,235.00
<b>합계.....</b>	<b>\$ 38,205.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 1월 13일(목) 오후 5:00-6:00
- 1월 14일(금) 저녁 8:00-9:00
- 1월 16일(일) 오전 6:00-7:00

1. 한국 천주교 성탄 메시지
2. 특강 : 윤원진 비안네 신부 "위대한 성인들"(22) - 베드로 크리슬로고, 다미아노 성인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0 AM</li> <li>• 10:00 AM(교중미사)</li> <li>• 2:00 PM(학생미사)</li> <li>• 5:00 PM(청년미사)</li> </ul>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